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남 유입 막아라

북한 발생 확인... 접경지역 전파 가능성 높아 돼지사육 전국 10% ... 차단·방역 활동 강화

전남도가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이 병이 북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상륙에 대한 공포감도 커지고 있는데, 돼지 사육두수가 전국 사육량의 10%에 달하는 만큼 긴장감 속에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 따라 22개 시·군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전남지역 580개 돼지 사육농가가 사육 중인 돼지만 110만 마리로, 전국 사육량의 10%에 이르는 만큼 자칫 지역 양돈산업

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당장, 전남도는 야생 멧돼지가 이동해 접경지역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만큼 해외 여행객의 통관 심사를 중심으로 하던 대응 방식을 변경해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우선, 22개 시·군 580개 양돈농가에 포획 트랩과 울타리 시설을 설치해 야생 멧돼지들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를 ‘숙주’로 삼아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또 농장 전체에 담벼락을 치듯 생석회를 뿌려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도 긴

급히 시·군에 전달, 시행토록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율이 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먹이는 돼지 농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남은 음식물(잔반)을 돼지에 주는 지역 사육농가 8곳을 대상으로 시·군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 전화 예찰과 현장 방문에 실패를 주적중이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더라도 80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를 하면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이같은 열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음달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이라도 배합사료를 주는 쪽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 출신 외국인인 근무하는 양돈농가도 파악, 수시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고병원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아직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1960년대 아프리카에서 서유럽으로 퍼졌다가 1990년대 중반 박멸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야생멧돼지 등에 의해 동유럽에 전파된 뒤 지난해 8월 이후 중국과 베트남으로 급속히 확산하다가 급기야 북한에서까지 발생, 국내 양돈 농가와 축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로 이상 여부를 점검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양돈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전남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다뉴브강서 한국인 추정 시신 1구 발견

한국 수색팀 수중 투입... 이르면 5일부터 인양작업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 엿새째인 3일(이하 현지시간) 아침 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소속 잠수 요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처음으로 수중 탐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1구 발견됐다.

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현장지휘관인 송순근 대령(주헝가리 한국대사관 무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헝가리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지점에서 102kg 떨어진 하르타(harta) 지역에서 외관상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송 대령은 “헝가리 당국이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 잠수요원들의 수중 투입은 지난날 31일 현장에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1진이 도착한 지 나흘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 측 수색구조팀은 다뉴브강 중간의 머그리트 섬에 지휘본부를 차린 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중수색을 벌여 왔으나, 수중수색은 강의 거센 유속과 매우 혼탁한 시계 등으로 인해 그동안 성공

하지 못했다.

이날 아침 회의에서 헝가리 당국의 최종 승인으로 처음으로 수중 수색에 돌입한 한국 잠수요원들은 정부가 해군 해난구조대(SSU), 소방청 국제구조대, 해경 등에서 차출해 파견한 최정에 대원들이다. 정부 신속대응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파견한 25명의 요원 중 11명의 잠수요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베테랑 대원들이다.

한편, 헝가리 당국은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에 대한 인양작업을 이르면 오는 5일부터 시작해 최대한 9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송순근 대령은 “헝가리 측은 인양 준비 작업을 시작해 이르면 5일부터 인양을 시도하고 최대한 9일까지 인양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 대령은 헝가리 당국 측이 대형 크레인 수심이 더 낮아지는 5일경 현장으로 이동시켜 인양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헝가리 당국이 수중 선체 수색을 위해 200kg 무게의 대형 사다리 2개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CC 라운드테이블’ 애플문화전당, 28일 개최

해외문화기관 온라인 홍보 담당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ACC 라운드테이블’이 오는 28일(오후 2시-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ACC 라운드테이블’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 경향을 파악하고 문화예술기관과 관람객들의 소통 방안을 살펴보는 동시에 ACC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돼 2017년 첫 행사가 열렸다.

올해 행사 주제는 ‘디지털 콤플렉시티’ Digital Complexity) - 디지털 시대 문화기관의 소통’으로, 공간과 장소의 한계가 없는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관객들과 관계의 진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문화예술기관의 혁신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한다.

해외 참가자는 세계 최대 뮤지엄 컨퍼런스인 뮤지엄 넥스트 장담자 짐 리차드슨, 반 고흐 미술관 웹·디지털 매니저 프렌치 판스터, 뉴욕 유대인 박물관 디지털 디렉터이자 문화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인 자야자이 파이, 브루클린 미술관의 방문자 체험 및 참여 디렉터 사라 디바인 등이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국내 대표 문화예술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관객과 함께 하는 디지털 소통 혁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특별 세션을 개설, 문화기관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관객과의 소통 부문이 추가됐다. 이번 행사는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선착순(80명 정원)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박성진 기자 skypark@



이개호 농림부 장관, 불법 축산물 검역 홍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한 불법 축산물 검역을 홍보하고 있다.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다. /연합뉴스

전남 축산재해 예방 94억 투입

‘유형별 대응 요령’ 마련... 피해 예상지역 사전 점검 복구 지원

전남도가 올해 폭염, 집중 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에 따른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을 위해 ‘축산 분야 재해 유형별 대응 요령’을 마련해 94억원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도 무더위가 일찍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군별 피해 예상지역을 사전 점검해 피해 발생 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한 피해상황을 접수해 긴급 복구지원이 이뤄

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매년 여름철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난해 ‘가축 폭염 피해 예방 항구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는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폭염 방지 시설·장비 20억원, 폭염 고조 기간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14억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6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여름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장기화되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국 최초로 예비비 등 100억원을 긴급 투입해 폭염 대응 시설·장비 및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지원, 가축 폐사를 크게 줄였다.

배운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나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가축 및 축사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지붕 물 뿌려주기, 차광막 설치, 환풍기 가동 등을 실시하고, 가축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비타민, 미네랄, 신선한 물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기료 누진제 3개 개편안... 여름 냉방비 부담 더

정부가 전기료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들이 올 여름부터 냉방 부담을 덜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말부터 민간 누진제 테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비지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각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했다. 첫번째 방안인 ‘누진구간 확장안’은 누진제 폐지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두번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

을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세번째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요금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기료를 적게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상되는 반면 전기료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하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복수의 개편안을 놓고 이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지를 방침이다.

/연합뉴스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 인접 맹지도 15만~20만원씩매매임
-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함
- ▶ 992㎡(300P), 지분 매매
-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 H.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교환

- 순천 낙안 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집 132㎡ 은행 9천 매도 3억천

투자·매도·교환

- 서구 마죽동 대지 384㎡ 투자에도 좋음 5억8천
- 광산구 보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이 1억6천
- 광산구 쌍암동 대항빌딩 중의 2층 25㎡ 과일즙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중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점 토지 155㎡ 건물 263㎡ 4억
- 충장로 4가방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영광 영산면 바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윤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시설 등 적합 4억7천
- 김정가 50%. 해남군 신이면 금성리 대지 17518㎡ 주택 2 감정 21억 1600
- 남평읍 드들강 모뎀 땅 2741㎡ 건평 1748㎡ 식당과 28실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점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진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팬션좋은 7억2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지

- 광산구 장수동 담 자연녹지 마을집,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읍 동사리 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 매매가 14억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 임야 담 11만㎡ 우사4동, 매12억
- 무안 현경면 마산리 전 5300㎡ 매 3억8천만
- 해남 산이면 계획관리지역 대지 17,000㎡ 김정가 50% 매11억
- 강진 성전면 상업 준 2중일반주거지역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 2차선도로점 매1억1천만
- 영암 신북면 11,000㎡ 과수원 2차선 도로 점 매 4억3천

상가

- 백운동 2층 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 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 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132㎡ 보2500만 월160만 포함 인접제외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아파트 1층 상가 대로점 330㎡ 은행4억 포함 승계가 매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읍 종교지, 전, 임야 1만㎡ 사찰건물최고 납골당 4개인사찰임 매11억
- 화산 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동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면 중월리 대지4,200㎡ 모텔4층, 2층식당 팬션, 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외우리 농가주택 대지 575㎡ 주택106㎡ 울리모뎀링 매 1억4천만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중중4층 엘리베이터 방2 거실큰 전세8천만원포함 매1억3천만
- 월산동 우방아이유셀 115㎡, 9층, 매3억8천만

상담전화 ☎ 010-2314-8567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뉘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